

## 홍승혜 개인전 '회상', '유기적 기하학'서 출발한 작품 총망라

강이슬 기자

2014-07-09 11:41



▲ Hong Seung-Hye, 2008 [사진=국제갤러리]

홍승혜 개인전 '회상회想'이 오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K2)에서 열린다.

홍승혜 '회상' 전시는 2008년 국제갤러리 1관에서 선보인 개인전 '파편(Debris)' 이후 6번째 개인전으로서 회고적인 성격을 지닌다. '회상'이란 전시제목은 1997년부터 시작된 작가의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으로 출발한 일련의 대표적인 작업들과 당시 작가가 다루었던 주요한 접근방식을 흑백의 조각 및 평면,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는 프로그램의 기본단위인 픽셀의 결합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한다. 작가는 이 사각의 그리드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열, 조합, 반복, 분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증식시키며,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또한 논리적인 그리드의 조형적 안정감 속에 분절을 가미함으로써 불안한 질서와 불협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의 이미지는 모니터에서 탄생하여 실재 공간으로 나와 다양한 일상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등 조형적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수행해 왔던 다양한 시도들, 즉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왔던 과거의 작업들을 형태와 소재의 변형을 거쳐 보여준다.

'회상' 전시에서 선보이는 '유기적 기하학'의 여러 변주들은 각자가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그리드가 되어 하나의 전시 안에서 위계 없이 재생, 복제, 증식되고 있다. 이는 각 작품이 구성요소가 되어 전시 자체가 거대하고 역동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며, 작가가 진행해 왔던 유기적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홍승혜 작가는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1986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URL: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2513](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2513)

\